주 일 예 배

오전 11시 — 예배인도 이진우 목사

찬 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다 같 이
조용한기도	Prayer	다 같 이
찬 송	Hymn 36	다 같 이
기 도	Prayer	박종갑 장로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 도 자
성 경	사무엘상15:24-31	인 도 자
설 교	성공에 숨겨진 유혹	이진우 목사
찬양과봉헌	Hymn 427	다 같 이
축 도	Benediction	이진우 목사

■ 다음주 기도 : 남영아 집사

예 배 와 모 임 안 내

주일1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2부 예배	**오후 3시(다음주부터)**
수요성경공부	**매수 오후7시(예정)**
가정교회예배	**매주 금요일(예정)**

교 회 를 섬 기 는 이 들

목회사역	**이진우 목사(Rev. Jin W. Lee)**
행정사역	**박종갑 장로**
양육사역	
찬양사역	

【자유교회 Vision 소개】

■ **자유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유일한 담임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유교회는 사람보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길 원합니다. 교회의 행정과 운영에 있어서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고집할 것이며 실험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란 늘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즉 교회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만약 교회가 부패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회 건물이 노후했다는 뜻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인 우리 자신이 교회답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회복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가 지켜야할 지상최대의 명령입니다. 가깝게는 지역사회로부터 크게는 세계 각처에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실제적으로 헌금의 50%를 선교와 구제 그리고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일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 **자유교회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 받은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회복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모든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 권세와 문화에 좌우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해 힘쓸 것입니다.

2006년 9월 2일 제5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LIBERTY COMMUNITY
자 유 교 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확장하는 교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교회

자유교회 Liberty Community Church

34617 8th Ave SW Federal Way, WA 98023
Tel (253)661-5436(fax), 227-1775
E-Mail: graceofjesus@comcast.net

금주의 말씀요약

사람은 일을 함에 있어서 결과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잘못 생각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괜찮다는 생각은 지극히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에만 집착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발상입니다. 사람은 일에 있어 결과로 그 사람의 사역이나 일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일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 아니십니다. 열심히 했어도, 최선을 다했어도 실패로 끝나는 일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동기가 옳았고 그 일을 진행하는 과정도 정직했지만 결과는 분명 실패로 끝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그것을 사람의 일로 만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결코 씨를 자라게 하지 못합니다. 다만 씨를 뿌릴 뿐입니다. 물을 줄뿐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결과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자 하는 절대교만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며 사울과 맞서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사람들을 단결시키고 전투를 준비시킬 목적으로 제사장 사무엘 없이 예배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아말레과의 싸움에서 저지른 불순종은 사울이 아말렉과 그 모든 소유물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쓴다는 구실로 부하들에게 가장 좋은 짐승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 두도록 허락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인기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두 번의 전쟁 중 벌어진 이 사건은 얼핏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는 마음에서 벌어진 일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울의 우선적인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일을 통해 백성에게 인기를 유지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에게서 인기를 얻는 것은 참으로 사람을 흥분하게 합니다. 우쭐하게 합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서 받는 인기가 주는 유혹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받는 인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순식간에 식어 버립니다.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선 더욱 자극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사울 왕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기를 지속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눈에는 하나님보다도 사람들이 어느덧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일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될 때보다 일을 참 잘한다고 인정받을 때가 더욱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입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스스로의 만족은 급기야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일이 주는 유혹입니다.

좋은 일을 맡았다고 해서 좋은 일을 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의 역할이 선하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자신의 옳음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닙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하나님의 영의 기름부음에 의해 왕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좋은 일을 맡았습니다. 똑같은 일을 수행하는 데 사울은 실패했고 다윗은 성공했습니다. 일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완벽하게 이루는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사는 삶의 열쇠는, 어떤 직업이나 일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에 대하여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사람의 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한 종류의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사울의 일은 분명 하나님의 일이었지만, 사울은 그 일을 자신을 드러내는 일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하찮게 보이는 궁중의 악사라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맡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 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세상의 아무리 하찮게 여겨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유교회 소식】

1. 자유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실현되기 위해 힘쓰길 원하는 교회입니다. 기도와 전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시다.
2. 예배 후 8월 재정보고 및 첫 선교비 지출에 관한 회의가 있겠습니다.
3. 8월 재정보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 $898.00 지출: $749.00 잔액: $149.00
   지출내역: 목사사례($300.00) 선교비 적립($449.00)
4.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주일 오후 예배는 당분간 주일 낮 예배와 같은 순서와 같은 말씀으로 진행됩니다.
5. 자유교회 예배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253) 661-5436, 227-1775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인터넷 선교를 위해 자유교회 홈페이지를 준비 중입니다. 정식 홈페이지 오픈에 앞서 미니 홈페이지를 운영 중입니다.
   http://cyworld.nate.com/libertycommunity

지난주 헌금통계

십 일 조:	$175.00	
감사헌금:	$42.00	
주일헌금:	$11.00	**합 계: $228.00**

금주의 중보기도

- 자유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여 이민교회에 새로운 영적 파도를 일으키게 하옵소서.
- 자유교회와 함께 할 진실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옵소서